

文藝通信

創刊八十年

우체국과 사람들
9+10月

郵政事業本部

CONTENTS



KOREA POST MAGAZINE
SINCE 1946

우체국과 사람들

2026년 9+10월호(통권 772호)

발행인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발행일 2026년 9월 1일

발행처 우정사업본부 홍보협력담당관실

주소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편집인 신봉현

편집위원 지현근, 오영진, 박세호, 조지혜

기획 한국우편사업진흥원(담당 조현주 hj1911@posa.or.kr)

편집/디자인 (주)꽃을담다

2026 9+10

04

테마 프롤로그

06

우정가족 앙케트

결실의 계절, 나를 성장시킨 습관은?

10

아주 보통의 우정인

흔들림 없는 기반 위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우정정보관리원

최원진·이승주 주무관

12

우정 포토제닉

우리 함께여서 정말 좋았지

14

80주년 축하 메시지

80년의 시간을 함께한

우리들의 이야기

16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I

지금 만나러 갑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편지를 써보세요

김동화 화백

20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II

어바웃 타임

표지로 읽는 80년, 다섯 번의 이름

DISCOVERY

RECOVERY

20

헬스레터

'가을 탄다'는 말,

과학적으로 진짜일까?

22

컬처레터

기억하고 기록하며 빠져드는

요즘 취미, 독서

24

Dear,

26

우체국 옆 공항

세계를 잇는 문화 교류의 플랫폼

김해국제공항

28

우체국 트립

빛나는 변화와 함께하는 동반자

부산강서우체국

32

우체국 행복나눔 소식

다정한 마음을 이어 행복을 틔우다

우체국공익재단과 함께하는

'장애가정 아동 성장멘토링'

36

우정 포커스

우체국 금융의

내일을 여는 핵심 SP

김태희 서울중앙우체국 금융영업실장·

김광재 포항우체국 금융영업실장

38

나만 몰랐던 우체국 서비스

우체국이 핫플레이스로!

국유재산의 재발견

우표, 시대에 풍당 빠지다

'202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40

우체국 핫클립

42

우정 카툰

44

우체통 앞에서

46

POST NEWS

48

우정 알림장

50

POST EVENT



postnews.kr
《우체국과 사람들》웹진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을엔,
여름내 내려다보던 잎들을
태양이 몸을 낮춰
다정히 마주봅니다.**

우체국 사보가 80년을 자랐습니다.
《우체국과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도
한 뼉 더 여물어갑니다.

결실의 계절, 나를 성장시킨 습관은?

1위

건강한 몸이 먼저!
운동



응답자 가운데 절반 가까운 우정인이 꼽은 압도적인 1위는 운동이다. 헬스, 요가, 등산까지 종목은 저마다 달랐지만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만은 비슷하게 품고 있었다. 하루를 깨우고 스트레스를 씻어내며, 우정인의 몸과 마음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습관인 운동. 몸의 균형을 되찾는 스트레칭이나 무리 없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가벼운 체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이어나가 보자.

2위

내면을 다져주는
독서



바쁜 업무 중 틈틈이, 혹은 잠들기 전 짧은 시간을 쪼개 책장을 넘기는 우정가족도 많았다. 한 달에 몇 권씩 목표를 세워 읽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밑줄 그으며 읽기도 한다.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은 자신만의 내면을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영양제이다. 완독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마음에 드는 한 문장만 건져도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책 읽기를 시작해 보자. 하루 10분, 눈에 띄는 부분부터 펼쳐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위

상쾌한 하루의 시작
일찍 일어나기



남들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 하루를 여는 우정가족들. 새벽 5~6시 기상으로 확보한 조용한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뉴스를 챙겨 보거나,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기도 한다. 서두르지 않고 시작하는 아침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바꿔놓는다는 걸, 우정가족들은 이미 느끼고 있다. 아침을 여는 나만의 작은 루틴을 만들어보자.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어 환기하기처럼 부담 없는 실천만으로도 하루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운동

#헬스

#건강관리

#독서

#책읽기

#마음챙김

#일찍일어나기

#미라클모닝

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가을은 한 해 동안 뿌린 씨앗의 결실을 맺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내면을 채우기 좋은 계절이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스스로를 다잡고 단단하게 만들어 준 우정가족들만의 성장 습관을 물어보았다. 정리·편집실 일러스트. JUNO

설문기간 : 2026. 07. 13.~07. 24.

응답자 수 : 755명

해당 설문조사는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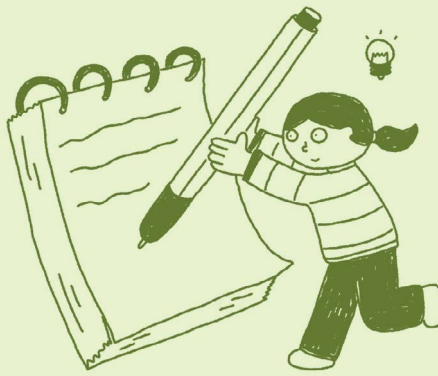
차곡차곡 쌓이는 기쁨 저축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모으는 저축도 성장의 습관으로 꼽혔다.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조금씩 모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든든한 밑천이 된다. 특히 믿을 수 있는 우체국 예금·적금 상품에 자산을 쌓아나가다 보면 마음의 안정과 성장의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하루 수천 원 단위의 잔돈을 모으는 소액 저축부터 목표를 정해 다달이 붓는 적금까지, 생활 속 저축 습관이 미래를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에너지가 된다.

5위

성공하는 습관 메모하기



깜빡 잊고 넘어가기 쉬운 약속과 할 일들을 적는 메모 습관. 노트나 다이어리에 하루를 정리하며 짧게 적어 내려간 기록들이 쌓이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한다. 메모는 사소해 보이지만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는 습관이다.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 외에도 메모 앱으로 언제 어디서든 생각을 기록할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도구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6위

생각 정리를 돕는 산책·러닝



단순한 걷기와 달리기, 산책이 나를 성장시키는 습관이 될 수 있다. 퇴근 후 하천변을 걷거나, 점심시간 짬을 내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일. 두 다리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습관은, 몸의 활력은 물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특히 요즘은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뛰는 ‘느리게 달리기’가 러닝 초보자들 사이에서 유행이다. 걷기 앱을 켜 놓고 만 보를 채우면 하루를 잘 보냈다는 만족감이 들기도 한다. 🏃

#저축

#적금

#미래를위한준비

#메모하기

#다이어리

#기록의힘

#러닝

#산책

#만보걷기

결실의 계절, 나를 성장시킨 습관은?

1



#협재우체국

#고명희

사무실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나의 최애 운동인
수영으로 해소합니다.
아자아자! 수영하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봅니다.

4



#부여장암우체국

#김선영

일과나 업무를
메모해 놓으니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잘 나서
좋아요. 거창하지는
않지만 메모하는
습관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익산영등동우체국

#김혜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헬스장 가기!
운동으로
몸과 정신을
리프레시하는 습관!

5



#기장우체국

#김영경

마음이 아플 때
독서를 하면
내가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3



#고양풍산동우체국

#김명순

취미 생활로
주말마다
클라이밍을 하니,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6



#대구수성우체국

#엄화정

걸어서 출퇴근하기!
출근하는 마음에는
즐거움, 퇴근하는
마음에는 감사와 보람.

7



진부우체국
정우정
적지만
조금씩 저축하기!

10



거창남상우체국
강해선
다문화 사회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외국어 배우기.
매일 한 문장씩 외우기

8



광적우체국
이채은
나에게 맞는
적절한 저축하기.
과소비하지 않기!

11



영월우체국
김미애
50대 중년.
앞으로 얼마나
더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두 다리 멀쩡할 때
뛰자”라는 심정으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9



나로도우체국
김남준
일찍 일어나기,
패턴화된
생활습관 유지하기,
건전한
취미 생활 즐기,
업무 일지
꾸준히 작성하기

12



금산우체국
박상미
빨간 글씨 날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산으로! 등산을
다니기 위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하는
루틴이 생겼어요.^^

흔들림 없는 기반 위에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우정정보관리원 최원진·이승주 주무관



우정정보관리원
최원진·이승주 주무관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QR을 촬영하면 영상이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국 우체국의 우편·금융 서비스가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정정보관리원 최원진·이승주 주무관은 안정적 시스템 운영이야말로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 말한다. 본업은 물론 우체국 디지털 홍보 파트너, ‘우디’로도 함께 활동 중인 두 사람은 오늘날 한 걸음씩 각자의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리, 편집실 사진, 김성재

Q.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원진 주무관 ▶ 우정정보관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9년 차 공무원으로, 우체국 창구에서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우정정보관리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현재는 보험료 자동이체 및 카드 자동결제 시스템 운영 관리, 재보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승주 주무관 ▶ 저는 2023년에 입사해 현재 4년 차입니다. 업무는 고객의 보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전달하고, 사고청구 심사와 지급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Q. 우정정보관리원의 시스템 안정성이

실제 업무나 고객 응대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느끼시나요?

최원진 주무관 ▶ 전산 시스템이 흔들리면 전국 우체국 업무가 함께 흔들려요. 그래서 저희는 우정정보관리원을 ‘우체국의 심장’이라 생각하고 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승주 주무관 ▶ 시스템이 불안하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고객의 불편으로 돌아가요. 업무 처리가 늦어지고 고객이 다시 방문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Q. 아마 같은 부서(보험정보과)에서
동시에 우디가 선발된 건
홍보직원 14년 역사상 처음 같은데요.**

최원진 주무관 ▶ 심지어 보험운영팀으로 같아요. 더 놀라운 건 같이 뜻을 모아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차 심사 후 서로 지원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승주 주무관 ▶ 최종 면접까지 둘 다 합격해서 다행이었어요. 한 명만 합격했으면... 하하. 아무튼 '우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니 영광입니다. 함께 하니 아이디어도 나누고, 촬영도 서로 도울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원진 주무관과 함께 한다는 마음에 든든해요.

**Q. 이번 사보 주제가 '안정과 성장'이에요.
두 분에게 안정과 성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최원진 주무관 ▶ 우정정보관리원 직원인 저에게 안정은 우체국 전산 시스템이 사고 없이 원활히 운영되는 거죠. 그 시스템 하나하나가 전 우체국의 우편·금융 서비스와 직결되기 때문이고, 무탈한 하루가 제 심신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웃음). 그리고 성장은 제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직장 and 대학을 병행해 졸업했고, 오래 꿈꿔온 홍보 활동도 실현하고 있죠. 크고 작은 성장을 하며 점점 마음에 드는 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원진 주무관



이승주 주무관

이승주 주무관 ▶ 저에게 안정과 성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험 상품이 계속 새로 출시되기 때문에 시스템도 계속 개선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불안정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에게 성장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입니다.

**Q. 우체국 직원이자 '우디'로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요?**

최원진 주무관 ▶ 오랜 시간 국민 곁에서 사랑 받아온 우체국의 이미지를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심어주고 싶어요.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우체국을 즐겨 찾을 수 있게 돕는 것이 '우디'로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주 주무관 ▶ 저는 보험운영팀에서 보험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어요.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보험 상품을 고객들께 더 친근하게 홍보하고 싶습니다. 📣



※ 지면 관계상 아쉽게 모두 게재하지 못했지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여서 정말 좋았지

창간 월을 맞아, 자신의 자리에서 힘껏
최선을 다하는 순간과 아련한 추억이 담백 담긴
모습들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BEST 컷을 소개합니다.



운수라떼 한 잔 할래요?

출근하면 국장님께서 갓 내린 커피로 만들어주신 운수(운수우체국)
라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함께 식사 후 경치 좋은 운수리 주변을
다 같이 산책하거나 음악을 틀고 함께 춤도 추고요.
이런 좋은 관계들이 선한 영향을 끼쳐서인지 자녀들도 많고
고객님들과도 살갑게 지내고 외국인 손님에게도 영어로 우편 접수
및 금융 업무 가능한 운수우체국에 놀러 오세요. ^^
- 운수우체국 박지연



서인천우체국 금융의 미래를 이끄는
우수 직원과의 특별했던 1박 2일
- 서인천우체국 배부자



80년의 소통, 우체국사보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문화기획팀



《우체국과 사람들》 없인 못 사는
찐 애독자들! 손에도 한 권,
폰에도 한 권, 마음에도 한 권!
- 홍천우체국 김윤아



1967년 어느 여름날 선배님들이 야유회를 즐기시는 사진을
캐비닛 구석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분은 등산복을, 어떤 분은
넥타이를, 어떤 분은 시원한 속옷 차림을. 이날의 모임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낭만과 정감이 있네요.^^
- 경주우체국 이현진



울릉도 관광 중.
틈날 때마다 《우체국과 사람들》을 즐겨 봐요.^^
- 울릉우체국 손병호

우정 포토제닉 참여 방법 11+12월호 주제: 나눔과 희망

1. 소소한 일상 속 나눔과 희망이 담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긴다.

※ 과거 사진도 환영합니다! (단, 인물 포함 필수)

2. 사진과 함께 짧은 코멘트를 덧붙여 사연을 신청한다.

※ 응모 시 성명과 휴대폰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 지면에 사연이 소개될 경우 올리브영 상품권을 드립니다.



우정 포토제닉
참여 바로가기

80년의 시간을 함께한 우리들의 이야기

우체국 면접을 준

비하며 《우체국과 사람

들》에서 소소하고 따뜻한

일상을 접했습니다. 우정가족

의 따뜻한 일상을 읽으며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

습니다. 이제 우정가족의 한 사람으

로 80주년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 기
쁩니다. ☒ **마장우체국 안수민**

정년을 앞둔 지금, 사무실 책상 속 책

자를 다시 펼쳐보면 우체국 생활의

추억과 아날로그 감성이 새록새

록 떠오릅니다. 우체국과 사람

들 파이팅! ☒ **제천우체국**

원미숙

지난 80년 동안

우정가족의 일상과 땀

방울을 기록하며 소중한 이

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

다. 한 편 한 편 쌓인 기록이 앞으

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감과 감

동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 **청주우**

체국 이연진

우정의 역사가 흐르는 곳마다 《우

체국과 사람들》이 함께 해왔습니

다. 앞으로도 우정의 소중한 순간

들을 따뜻하게 담아 나가길 바

랍니다. ☒ **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 김흥재

우체국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우체국과

사람들》은 저보다 50년 먼저

우정가족과의 동행을 시작했습

니다. 80년을 묵묵히 걸어온 사보가

앞으로도 우정가족의 마음을 따뜻하

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 **익산2**

공단우체국 박혜진

커뮤니케이션은 조직의 심장부이며, 조

직의 성패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좌우

된다. 열린 매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

원하며, 80주년을 맞은 《우체국과 사

람들》 모든 구성원께 진심으로 축

하의 박수를 보낸다. ☒ **한국사보**

협회 회장 김흥기

창간 8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80년간 사보는
우체국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우정 가족들의
삶을 담아낸

궤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받기를
본부장으로서,
오랜 애독자로서
응원합니다.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우체국이 없었으면 기다림을 몰랐

을 것이며, 《우체국과 사람들》이 없

었으면 외로워서 까맣게 가슴이 탔을

것이다. 그리움과 그리움을 이어주는

우체국 80년 만세! ☒ **시인 안도현**

사보를 읽으면, 동료를 수많은 토피바퀴

중 하나가 아닌 저마다의 삶과 가치를

지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숨

가쁜 직장생활 속 작은 심포가 되어

준 《우체국과 사람들》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전남지방우정청 송자민**

1946년 10월, 《체신문화》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우체국과 사람들》이
어느덧 80주년을 맞았다. 국내 공공분야 사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지만,
늘 새로운 이야기를 담기에, 《우체국과 사람들》은 젊다.
전국에서 도착한 1,000여 통의 80주년 축하 메시지 중 일부를 펼쳐본다.

우리 이웃들

의 정겨운 이야

기로 마음을 풍성

하게 채워주는 《우체

국과 사람들》, 80번째 생

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우체국소핑 홍보모델 개그

맨 문세윤



새 사보를 손에 받았을 때의 '설렘'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번지는 '미소'가 앞
으로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원장 송관호

《우체국과 사람들》 잘 보고 있습니다. 한
권 한 권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방울이 스며들어 있을까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과 힘이 되는 내용들로 꽉꽉
채워서 보내주세요! 늘 감사히 구독하
겠습니다. ✉ 부산국제우체국 박성진

우정가족의 발자취와 헌신을 담아
온 《우체국과 사람들》의 창간 80
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정가족
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기록하며
서로를 이어주는 소중한 소통
의 창구가 되어주었습니다.

✉ 부평우체국 홍성욱

어제 유행했

던 아이템이 오늘

이런 구식으로 변하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우

정가족의 친구가 되어준 《우

체국과 사람들》의 창간 80주

년을 축하드립니다. 사보를 만

들어온 모든 분의 노력과 인내가

쌓여 오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한 페이지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

습니다. ✉ 부산사상우체국 권재욱

우체국에는 사람들이 삽니다. 오늘 사
람들의 행복(지금)을 받아, 내일 사람
들에게 행운(미래)을 보냅니다. 행복을
행운으로 바꾸는 일을 우체국이 합니다.
그 속에서 함께하는 《우체국과 사람들》
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 주세요. ✉ 군산
경암동우체국 최동엽



대한민국 우정의 역사와 함께한 《우
체국과 사람들》의 창간 80주년을 축
하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남은 초임
시절의 선배님들과 정겨운 우체
국 사진을 보며 한참 미소 지었
습니다. 다가올 100년에도 변
함없이 함께하기를 응원합
니다. ✉ 제주지방우정청

강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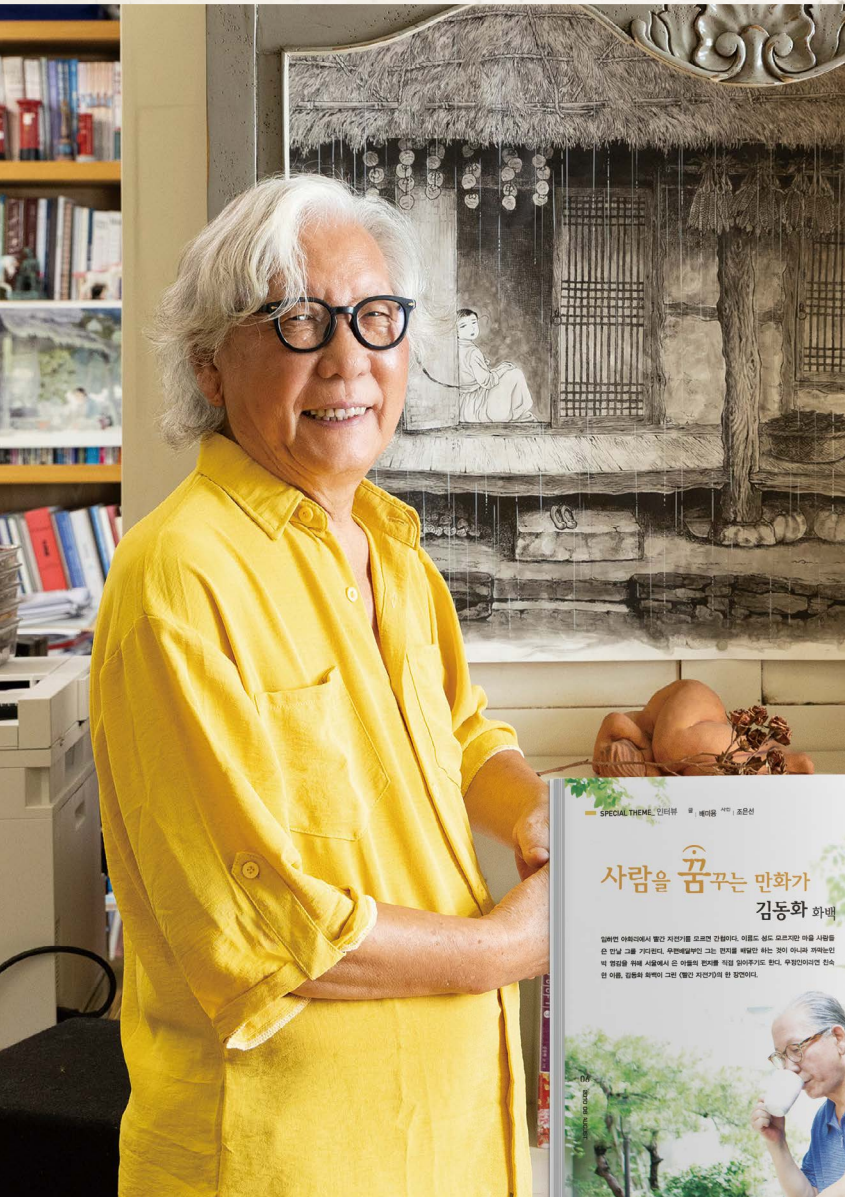
th

행복해지고 싶다면 편지를 써보세요

김동화 화백



《요정 핑크》, 《황토빛 이야기》 등을 통해 한국 순정·서정 만화의 한 지평을 열고, 한국만화가협회장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한국 만화사를 이끌어온 거장 김동화 화백. 대표작 《빨간 자전거》로 시골 마을의 소소한 일상과 집배원의 땀방울을 감성적으로 그려내며 우정사업본부의 ‘명예 집배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던 그가, 《우체국과 사람들》 창간 80주년을 맞아 우정 가족들과 독자들에게 반가운 안부를 전했다. 글. 백미희 사진. 이대원



삶을 이어주던 그리운 메신저, 우체국

오랜 시간 펜을 놓지 않고 늘 무언가를 구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왔다는 김동화 화백. 그에게 우체국과 편지는 어린 시절부터 가장 달콤하고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우리 세대에게 우체국은 정말 대단한 메신저였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안부를 물으려면 반드시 편지와 우체국을 통해야만 했으니까요. 편지를 써서 보내고, 상대가 받아 답장을 보내기까지 최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엇갈리고 기다리는 과정마저도 설레던 시절이었습니다.”

군대에 간 자식의 소식, 해외 근로자의 안부, 합격 통지서 등 기쁘고 절실한 소식을 전해주던 집배원은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존재였다. 빨간 벽돌 건물 위에 담쟁이넝쿨이 올라가고, 앞마당엔 우체통이 솟아 있던 우체국 풍경은 그가 학창 시절 가장 좋아하던 공간이기도 했다. 생각만 해도 그리운 그 따뜻한 추억들이 훗날 만화《빨간 자전거》를 탄생시킨 밑거름이 되었다.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따뜻한 공감의 힘

푸른 숲이 강을 이루고 들꽃 가득 핀 임하면 야화리를 배경으로 한 《빨간 자전거》는 우정인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선사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국내를 넘어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수많은 해외 독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다. 김동화 화백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작품이 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정서의 동질성’에서 찾는다.

“프랑스 출판사 편집장이 그러더군요. 지극히 한국적인 배경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집배원의 역할은 전 세계 어디나 똑같다고요. 정서가 같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도 깊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100편이 넘는 에피소드 중 그가 특히 애착을 가지는 이야기는 화려한 사건보다는 삶의 깊이가 담긴 소소한 일상이다. 거울을 보며 “얼굴의 주름살은 내가 기쁠 때나 힘들 때를 기록해 둔 나만의 일기장이자 역사”라고 말하던 할머니의 이야기, 찢어진 양말을 가장 먼저 골라 신는 아버지를 보며 가족을 향한 묵직한 사랑을 깨닫던 에피소드는 지금도 그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다.

느림의 미학, 편지를 쓸 때 피어나는 행복

2026년 10월, 창간 80주년을 맞이하는 《우체국과 사람들》 사보를 향해 김동화 화백은 반가운 축하를 전하는 동시에 종이 편지와 마음을 담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송되는 디지털 시대이지만, 그는 조금 느리게 상대방을 생각하며 써 내려가는 편지가 가진 힘을 여전히 믿는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편지를 써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편지를 준비하고 쓰는 동안 오롯이 그 사람만을 생각하며 스스로도 깊은 행복에 젖어 들게 되니까요. 조금 느리게 갈 때 비로소 주변의 풍경과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법입니다.”

그는 80년 동안 우정의 역사와 함께해온 사보의 생일을 축하하며, 지금도 전국의 골목길을 누비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후배 우정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빨간 자전거》가 전해준 따스한 감동처럼, 오늘도 현장을 누비는 우정인들의 발걸음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표지로 읽는 80년, 다섯 번의 이름

창간 80주년
특별 기획II

사보의 표지는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우체국이 세상에 건네는 첫인사다.

1946년 창간호부터 2026년까지 이어오고 있는 《우체국과 사람들》.

지난 80년간 제호를 다섯 번 바꿔 달며 우정사업의 변화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름이 바뀐 자리마다 그 시절의 변곡점이 하나씩 찍혀 있다.

소인을 찍듯, 그 다섯 순간을 한눈에 펼쳐본다.

정리. 편집실 자료. 《우체국과 사람들》아카이브

1946년 10월

창간·체신문화

1970년 4월

체신

1995년 1월

정보와 통신

2001년 7월

디지털포스트

2017년 1월

우체국과 사람들



1964. 01·통권 100호

1946~1970

체신문화(遞信文化)

체신부 소속기관인 체신문화협회가 1946년 10월 펴낸 사보의 첫 이름. 국한문 혼용 제호와 목판 인쇄 풍 글씨가 해방 직후의 시대감을 고스란히 담았다. 1964년 통권 100호 표지에는 우정 창시 80주년 기념우표를 그대로 실어, 체신의 역사 자체를 표지 소재로 삼기도 했다.



1971. 12·통권 18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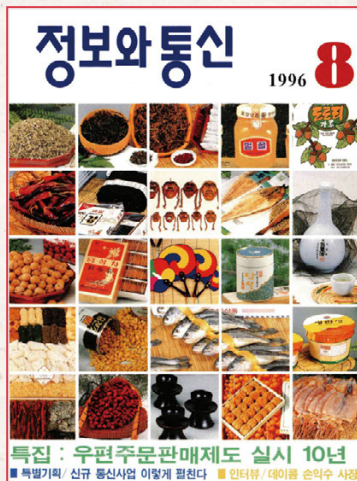
1970~1995

체신(遞信)

창간 24년 만인 1970년 4월, 넉 자였던 제호를 두 글자로 압축했다. 1971년 연말 서울중앙우체국의 창구 풍경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 특집(호돌이와 기념우표)까지, 체신부 시대의 크고 작은 국가적 순간이 표지마다 또렷이 새겨졌다.



1995~2001



1996. 08·통권 451호

정보와 통신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되며 제호도 함께 옷을 갈아입었다. 1996년 8월호 표지는 '우편주문판매 10주년'을 맞아 지역 특산물로 화면을 채웠고, 1997년 8월호 표지는 우주를 배경으로 한 디지털 이미지로 정보화 시대를 예고했다. 전통과 미래가 한 제호 안에서 공존하던 시기다.

2001~2017



2010. 07·통권 618호

디지털포스트(Digital POST)

우정사업본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처음 영문 제호를 달았다. 2001년 11월호 표지는 가을의 계절감과 우체국의 정취를 담은 일러스트였고, 2010년 7월호 표지는 출범 10주년을 맞아 케이크 앞에 선 역대 본부장들의 캐리커처로 채워졌다. '디지털'이라는 이름처럼, 조직도 빠르게 성장해 갔다.



2018. 11·통권 718호

2017~현재

우체국과 사람들

기관의 이름 대신 '사람'을 제호 전면에 내세운 지금의 이름. 2017년 재창간호에 이어 2018년 11월호 표지는 형형색색 우체통이 늘어난 '우체통거리' 풍경을 담아, 우정사업을 다큐멘터리처럼 기록하는 지금 사보의 색깔을 보여준다.



지난 80년 동안 시대에 따라 사보의 얼굴과 표지의 결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사람과 사람을 따뜻하게 연결하고자 하는 우체국의 진심만큼은
언제나 표지 가장 앞자리에서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

‘가을 타다’는 봄, 과학적으로 진짜일까?



마음은 괜히 멜랑콜리해지는데 식욕은 ‘천고마비’를 충실히 따르는 계절.
 이 정도면 계절을 타는 게 아니라 ‘가을 멀미’를 겪는 수준이다.
 가을을 둘러싼 몸과 마음의 신호, 그 속설 속 진실을 파헤쳐 보고
 이 계절을 지혜롭게 통과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정리. 편집실



마음이 헛헛하고 식욕이 당기는 이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흔히 ‘가을을 탄다’고 표현하는 이 현상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닌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신체 변화다.

가을철 낮 시간이 짧아지고 일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우리 뇌에서 기분을 조절하고 안정감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면서 낮 동안에도 피로감과 정서적 침체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일조량 변화에 따른 생체 리듬의 흔들림은 의학적으로 ‘계절성 우울감(SAD)’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흔히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부르며 식욕이 폭발하는 것 역시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 몸이 부족해진 세로토닌 수치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 고칼로리 탄수화물을 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음식 탐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보약 같은 가을별 쪼며 산책하기

“봄별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별에 딸 내보낸다”라는 옛말이 있다. 자외선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을별은 오히려 몸에 이롭다.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칼슘 흡수를 돕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며, 뇌가 햇빛을 인지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이 적절히 분비되어 우울감과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그렇다면 이 보약 같은 가을별, 어떻게 쪼여야 할까? 오전 11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 하루 20~30분 정도 걷는 것이 가장 좋다. 잠깐 쪼는 것만으로는 비타민 D가 충분히 합성되지 않으므로, 짧게라도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다만 한낮에는 가을이라도 자외선이 강할 수 있으니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모자로 가려주는 대비가 필요하다.

가을철 가라앉은 기분과 늘어나는 식욕도 알고 보면 이 가을별 산책 한 번으로 세로토닌이 채워지며 함께 다스려진다. 가을의 스산함이 몸과 마음을 흔들 때, 잠시 밖으로 나가 따스한 햇살 아래 걸어보면 어떨까. 햇살을 쬐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충전할 수 있다. 🌞

가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한 방법



하루 20~30분 낮 산책하기



꼼꼼한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기



바나나, 계란, 두부, 견과류 등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영양소 섭취하기



규칙적인 수면과 유산소 운동하기

참조

“하늘이 높아졌다...가을철 ‘식욕 폭발’을 대비하라”, 사이언스타임즈, 2025. 9. 30.

‘딸 내보낸다’는 가을 햇빛, 정말 몸에 좋을까?, 헬스조선, 2025. 9. 14.
해가 짧아질 때 찾아오는 우울감 ‘계절성 정동장애’를 아시나요?, 주간경향, 2025. 11. 21.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돌아왔다. 최근의 독서는 단순히 눈으로 읽는 행위를 넘어 필사와 서평, 책방 투어로 나만의 일상을 차곡차곡 채워가는 ‘기록 문화’이자 하나의 즐거운 놀이로 자리 잡았다. 읽고, 쓰고, 거닐며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가을 독서의 새로운 풍경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사진.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 누리집



#1 독서 인증샷과

한 줄 필사로 키우는 독서 습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11월 15일까지 대국민 독서 캠페인인 ‘2026 책 읽는 대한민국’을 펼치고 있다.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싶다면 캠페인 공식 누리집(read365.kr)에 방문해 ‘책력 인증’으로 독서 기록을 남겨 보자. 읽은 페이지를 사진으로 남기는 독서 인증샷, 마음에 든 문장을 모으는 한 줄 필사, 나만의 감상을 남기는 서평 쓰기를 진행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성취 단계에 따라 도서상품권, 독서 꾸러미(키트), 전자책 리더기 등 풍성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 골목 책방을 찾아다니는

여행을 즐겨볼까

요즘은 여행이나 나들이를 떠날 때 전국 곳곳의 골목 책방을 코스에 넣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가고 싶은 지역의 책방을 미리 찾아보고 방문하면 여행이 훨씬 다채롭고 풍요로워진다. 올해는 이러한 책방 투어도 ‘책 읽는 대한민국’ 캠페인의 ‘체크인’ 프로그램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누리집(read365.kr)에 등록된 체크인 스팟(책방)을 방문해 독서 여권에 도장을 모으면, 스탬프 개수에 따라 커피 기프트콘부터 도서상품권, 여행 독서 키트까지 다채로운 선물이 제공된다.

참조

독서 인증하고 '책력' 쌓아보세요...전국 북클럽 리그도 개최, 연합뉴스, 2026. 6. 30.

숏폼 세대, 다시 종이책을 들다, 한경, 2026. 6. 25.

느리게 읽는 인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트인사이트, 2026. 05. 23.

'텍스트 힙' 넘어 '라이팅 힙'으로... 종이와 책 집어 드는 2030, 동아일보, 2026. 01. 31.

**#3 혼자 말고 같이,****독서모임에서 즐기는 '책 읽는 맛'**

요즘 독서 트렌드의 중심에는 '함께 읽기'가 있다. 매달 책 한 권을 정해 읽고 정기적으로 모여 대화를 나누는 독서모임은 회사 동료나 지인들끼리 결성하기도 하고, 유료 독서모임 플랫폼을 통해 만나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출판사가 직접 운영하는 북클럽에 가입하는 이들도 늘고 있으며, 동네 책방이나 공공도서관에서도 자체 독서동아리를 상시 운영하고 있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묘한 동지애가 피어나기도 한다. 공공도서관 누리집이나 책방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면 나에게 딱 맞는 독서모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4 '라이팅 힙',****읽고 쓰며 기록하는 즐거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만의 기록을 써 내려가는 사람도 늘고 있다. 책의 한 구절을 손으로 옮겨 적는 필사나 감상을 남기는 독서노트가 대표적이다. 빠른 디지털 시대 속에서 손으로 쓰는 아날로그적인 행위는 마음을 정돈하고 편안한 휴식을 안겨준다. 읽은 책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이들도 많다. 독서 목표와 진행 상황을 관리하는 기능을 활용하면, 다 읽은 책이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아닌 나만의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느리지만 깊게 읽고 기록하는 행위는 결국 나만의 삶의 속도를 찾아가는 근사한 방법이다. 📖





노랑고 빨강게
세상을 물들이는 마법

우정사업본부 X KAC 한국공항공사

사보 협업 프로젝트

세계를 잇는 문화 교류의 플랫폼 김해국제공항

매년 가을,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가장 영화적인 계절을 맞는다.

세계 각국의 감독과 배우, 산업 관계자, 관객이 이 도시를 찾는다.

그 여정의 첫 장면은 늘 김해국제공항에서 시작된다.

글. 《에어포트 포커스》 편집부 사진. 한상무



@부산관광아카이브



수영비행장에서 시작된 부산의 하늘길

부산 항공 역사의 첫 장은 1940년 동래군 남면 재송리에서 열렸다. 지금의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부지 일대다. 이곳에 일제는 군용 비행장을 세웠다.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쳐, 1948년 부산-서울 노선이 취항하며 민간 항공의 시대가 열렸다. 한국전쟁기 수영비행장은 더욱 절박한 역할을 맡았다. 유엔군 구호물자를 실어 나르는 수송의 거점이자, 임시 국제공항으로 기능하며 국가 생존을 떠받치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 1958년 '부산 수영비행장'으로 이름을 바꿨고, 1963년 국제공항으로 승격됐다.

김해시대의 개막과 성장

1976년 8월 1일, 더 넓고 안정적인 새 터전에 대한 요구로 공항은 김해군 대저읍, 현재의 부산 강서구 대저동으로 이전했다. 그리고 '김해국제공항'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넓은 김해평야에 자리한 공항은 이후 영남권 교통망의 중심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1993년 국내선 청사가 들어섰고, 2007년에는 국제선 청사가 신축됐다. 공항의 규모와 기능도 함께 커졌다. 2014년에는 연간 이용객 1,000만 명을 돌파하며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지형적 제약과 야간 운항 제한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김해국제공항은 꾸준히 외연을 넓히며 동남권을 대표하는 국제 관문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허브로 향하는 새로운 여정

2024년 4월, 김해국제공항은 다시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5년에 걸친 공사 끝에 국제선 확장 터미널이 문을 연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용 능력은 830만 명에서 최대 1,15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인프라 확충은 곧 성과로 이어졌다. 2025년 12월 19일, 개항 이후 처음으로 연간 국제선 여객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상징적인 기록이다. 김해국제공항은 현재 타슈켄트, 알마티, 발리 등 중장거리 노선을 꾸준히 넓혀가고 있다. 지역 거점 공항을 넘어 글로벌 허브로 향해 가고 있다.

영화제의 설렘이 시작되는 곳

김해국제공항은 부산의 첫인상을 완성하는 공간이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를 앞둔 가을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진다. 공항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영화인과 관객들로 활기를 띠고, 축제를 향한 기대감이 곳곳에 번진다. 한국 공항공사는 국제선 도착장 게이트 앞에 환대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포토존을 운영한다. 막 입국한 감독과 배우, 영화 팬들은 그 순간부터 부산의 분위기를 체감한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공항에서 영화제의 공기와 도시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스크린 위에서 도시의 현재를 비춘다면, 김해국제공항은 그 축제가 현실에서 시작되는 장소다. 🇰🇷



QR 코드를 스캔하면
김해국제공항과 부산강서우체국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해국제공항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108



빛나는 변화와 함께하는 동반자
부산강서우체국



POST OFFICE

부산 강서구의 눈부신 성장의 중심에는 지역의 든든한 동반자인 부산강서우체국이 있다.
 2000년 9월 개국 이래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와 진심 어린 서비스로 성장을 거듭해 온
 부산강서우체국. 주민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잇고, 지역사회와 함께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부산강서우체국의 이야기를 전한다. 글. 편집실 사진. 이대원



김차선 FC는 우체국 보험 연도대상과 FC 명인, MDRT회원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달성한 부산강서우체국의 자랑이다.

이곳의 진정한 원동력은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사명감이다.

도시의 발걸음과 맞춰 성장하는 우체국

부산강서우체국은 부산에서 비교적 늦게 문을 연 후발 주자에 속하지만, 강서구의 급격한 성장과 궤를 같이하며 부산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총괄국으로 자리 잡았다. 2000년 개국 당시 강서구는 인구 8만 명의 도농복합지역이었으나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조성,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에 힘입어 현재 인구 16만 명을 넘어섰고, 향후 32만 명을 내다보는 역동적인 도시로 탈바꿈했다. 대저·토마토로 유명한 농촌과 신도시, 김해국제공항과 3,360여 개의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단지가 공존하는 넓은 관할 환경 속에서, 우편·금융·국제특송 수요는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강서구의 변화와 성장에 발맞춰 젊고 패기 넘치는 직원들이 모여든 부산강서우체국은, 현장 중심 마케팅을 바탕으로 고중량 해외특송(EMS) 등 국제우편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며 눈부신 성과를 일궈냈다. 그 결과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연도평가 결과 5급 관서 '가'그룹에서 예금대상, 우편 우수상, 보험동상을 비롯해 2년 연속 우체국FC 전국 1위 배출, 각 분야 개인상 수상 등 굵직한 결실을 맺었다. 단일 우체국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일반직 5급부터 8급까지 승진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훈장까지 받으며, 우편·예금·보험 전 분야를 고르게 성장시킨 진정한 '숨은 강자'로 거듭나고 있다.

웃음이 만드는 놀라운 성과

부산강서우체국이 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는 배경에는 이상정 국장이 있다. 2005년부터 웃음치료사로 활동해온 이상정 국장은 우체국 옆 강서복지관에서 풀벌 웃을 입고 어버이날 재능기부를 하는 등 조직 안팎에 웃음과 긍정을 전파하는 리더다. 연간 100권의 독서, 3,000회가 넘는 '도토리의 웃음 편지', 매일 쓰는 감사일기와 업무일지는 국장 개인의 루틴을 넘어 직원들의 생일과 승진, 근무 1주년을 챙기는 섬세한 리더십의 바탕이기도 하다.

“모래만 쌓으면 무너지지만 시멘트라는 결합물이 붙으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처럼 저희 우체국 역시 직원들의 뛰어난 역량이 흩어지지 않고 잘 뭉쳐진 것이 성과의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정 국장은 한여름에도 국장실 에어컨을 거의 켜지 않는다. 폭염 속에서 강서구 곳곳을 돌며 배달하는 집배원들을 떠올리면 혼자 시원한 국장실에 앉아 있는 것이 미안해서다. 대신 폭염에 고생하는 집배원들을 위해 복날에는 수박화채와 삼계탕을 챙기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를 나누며 작은 산타 역할을 자처했다.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도 부산강서우체국 곳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활기가 넘쳐 보인 이유는, 무엇보다 이런 소소한 배려와 밝은 웃음이라는 큰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웃음과 긍정으로 조직을 이끄는 이상정 국장





부산강서우체국과 부산강서구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집배원들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되어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신뢰받는 우체국’을 향해

부산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관할하며 집배원 1인당 업무 부하량이 가장 높지만, 직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진정한 원동력은 지역사회를 향한 따뜻한 사명감이다. 특히 집배원 전원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의 안부를 살피는 ‘마음 이음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2년 연속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매일 구석구석을 누비며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해내는 집배원들의 진심은 주민들의 삶 깊숙이 온기를 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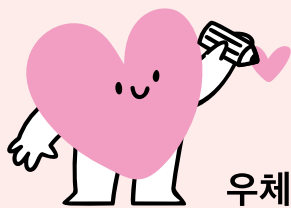
강서구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대저 짬짬이 토마토’처럼 지역의 색깔을 품고 단단하게 뿌리내린 부산강서우체국은 앞으로 명지국제신도시 청사 이전과 함께 서부산의 성장축으로 역할을 넓혀갈 예정이다. 이상정 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성장과 발맞춰 주민들에게 언제나 가장 신뢰받는 든든한 이웃이자 따뜻한 휴식처로 늘 곁에 함께하겠습니다.”라며 희망찬 다짐을 전했다. 📮



부산강서우체국 전경



부산강서우체국 창구 직원들



다정한 마음을 이어 행복을 티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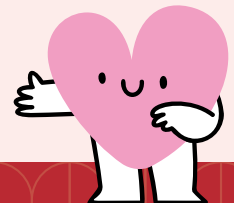


우체국공익재단과 함께하는 ‘장애가정 아동 성장멘토링’

13년 전, 대학생 언니의 손을 잡고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던 초등학생 멘티가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또 다른 아이의 손을 잡아준다. 우체국공익재단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함께하는 ‘장애가정 아동 성장멘토링’은 장애가정 아동과
대학생 멘토를 이어주며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동행을 만들어가고 있다.

전주에서 만난 전유빈 멘토와 하은(가명) 양의 다정한 이야기를 전한다.

글. 이정림 사진. 김성재



손을 잡고 걷는 토요일, 마음이 자라는 시간

여름의 문턱에 선 7월의 어느 토요일 오전, 전주의 한 도서관에서 스무 살 대학생 전유빈 멘토와 멘티 하은(가명) 양이 반갑게 마주 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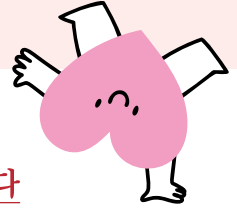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전유빈 멘토의 토요일은 하은이와 함께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동화책을 함께 읽으며 “주인공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고 도서관 주변을 산책하기도 한다. 걷는 동안 전유빈 멘토는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정하게 묻고, 하은이 역시 눈을 반짝이며 궁금했던 것들을 되묻는다.

이들이 함께하는 활동은 소박하지만 알차다. 지적 장애가 있어 표현이 서툰 하은이를 위해 전유빈 멘토는 맞춤형 학습을 진행한다. 연필을 바르게 잡는 법부터 국어의 첫걸음까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발을 맞춘다.

두 사람이 토요일마다 함께하는 또 다른 활동은 건강관리다. 성장멘토링은 시작과 종료 시점에 인바디 검사를 진행해 신체활동과 식사·위생 관리 계획을 세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장애가정 아동을 위해 전열기구나 부엌 가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도 함께 알려준다. 여기에 연 4회 아이가 원하는 영화관, 야구장, 애견카페 등을 찾는 문화체험과 멘토·멘티가 함께 떠나는 ‘우리두리 캠프’까지 더해져 두 사람의 주말은 매번 새로운 즐거움으로 채워진다.



13년 전 받은 마음, 또 하나의 인연으로 잇다



지금은 든든한 멘토로서 하은이의 길을 지키는 전유빈 멘토지만, 사실 13년 전 그에게도 토요일마다 찾아오던 대학생 멘토가 있었다.

“저는 외동이라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는데, 그때 만난 멘토 언니가 정말 잘해줬어요.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언니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모습까지 다 봤죠. 당시 가장 좋았던 건 '나에게도 편하게 마음을 나눌 언니가 생겼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릴 적 받았던 따뜻한 기억은 열세 해를 건너 대학생이 된 그를 다시 이 자리로 이끌었다. 자신이 받은 따뜻한 마음과 행복을 누군가에게 꼭 나눠주고 싶었다는 전유빈 멘토는 13년 전 멘티에서, 이제는 하은이의 ‘든든한 언니’이자 멘토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이처럼 특별한 만남을 갖도록 이어준 것은 우체국공익재단이 한국장애인재활협회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2026년 장애가정 아동 성장멘토링’이다. 본인이나 부모, 형제자매가 장애를 가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7~14세 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및 일반인 멘토가 1:1로 짝을 이뤄 2월부터 12월까지 한 해를 함께하는 사업이다. 아이가 건강과 학습, 일상을 스스로 관리할 힘을 기르고, 멘토 역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에 둔다.

올해는 전국 35개 공동수행기관을 통해 멘티 300명, 멘토 300명, 보호자 300명 등 총 900명이 참여하고 있다. 멘토와 멘티의 매칭 기준은 성적이나 거리가 아니다. 아이의 꿈과 취미, 가정의 특성(한부모·다문화·조손 등)을 다각도로 살펴 가장 잘 어울리는 서로를 찾아 매칭한다.

통장에 쌓이는 미래, 마음에 피어나는 미소

성장멘토링으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지난 3월, 다 함께 모인 식사 자리에서 전유빈 멘토는 “하은이에게 건네야 할 말 한마디가 잘 안 나오더라”고 회상한다. 낮가림이 심하고 표정이 없던 하은이었지만, 매주 토요일이 쌓이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다. 전북장애인재활지원센터 정서이 사회복지사는 “처음엔 나이 차이도 나고 공감대도 달라서 어색해하는데, 8회차쯤 지나면 멘토와 멘티 사이에 신뢰가 쌓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라며 “하은이는 자기표현을 어려워하는 아이였는데, 멘토 선생님이 다정하게 챙겨주니까 점점 밝게 웃더라고요.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라고 전했다. 전유빈 멘토 역시 “이젠 하은이가 먼저 ‘선생님, 저 오늘 뭐 했어요.’ 하고 이야기를 건네줘요. 그럴 때 정말 행복했어요.”라며 웃어 보였다.

성장멘토링에는 우체국만의 아주 특별한 금융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멘티로 선정되면 아이 이름으로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는데, 아이가 매달 1만 원을 저축하면 우체국이 3만 원을 더해 매달 4만 원씩

적립해 준다. 연 8회, 1년이면 아이의 이름으로 든 든한 자립 자금이 쌓인다.

여기에 우체국금융개발원과 연계하여 ‘현명하게 돈을 모으고 쓰는 법’에 대한 금융교육이 더해진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경험과 그 숫자를 다루는 법을 나란히 배우는 셈이다. 이 통장은 11월 종결식에서 아이의 손에 직접 전달된다. 1년의 활동 소감을 발표하고, 수료증을 받고, 자기 이름이 적힌 통장을 건네받는 것으로 한 해가 마무리된다.

이 사업은 장애가정 아동뿐 아니라 멘토 또한 성장하는 사업이다. 멘토들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발대식에서의 서약서 작성, 전문 슈퍼비전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된 멘토 간담회, 양육 정보 공유를 위한 보호자 간담회 등 촘촘한 지원 체계는 멘토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성장까지 든든하게 받쳐준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는 든든한 멘토가 생긴다는 것,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을 경험하는 폭을 넓혀간다는 점이야말로 성장멘토링이 가진 가장 큰 힘이다.





더 넓은 세상으로, 함께 걸어갈 내일을 꿈꾸며

어느덧 4개월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낸 두 사람에게
는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들이 가득하다.

“하은이의 꿈이 제빵사예요. 앞으로는 빵 만들기
체험이나 박물관, 체험관 같은 곳에 자주 가보고 싶
어요. 공부나 그림 그리기 같은 정적인 활동을 넘
어, 밖으로 나가서 더 다채롭고 활동적인 추억을 만
들어주고 싶습니다.”

전유빈 멘토는 하은이에게 거창한 선생님보다는,
언제든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언니로 기억되기를 바
란다.

“제가 어릴 때 멘토 언니에게 느꼈던 것처럼, 하은
이도 ‘언제든 마음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편한 언
니가 생겼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언제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늘 뒤에서 응원하고 있는 든
든한 지원자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전국 어디에나 위치하며 사람과 마음을 이어온 우
체국. 13년 전 한 아이가 품었던 작은 행복이 오늘
또 다른 아이를 보듬는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듯, 아
이들의 밝은 내일을 이어주는 우체국의 성장멘토링
은 지금 이 순간에도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다. ✉



QR 코드를 스캔하면
하은이와 전유빈 멘토가 만난
다정한 하루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INI INTERVIEW



정서이 사회복지사

(전북장애인재활지원센터)



Q1. 사회복지사는 멘토링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맡나요?

저는 활동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지만, 아이의 안전한 귀
가를 확인하고 멘토가 제출한 활동일지를 토대로 피드백
을 드립니다. 매주 쌓이는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이 어떤 시
간을 보내고 있는지 살피고 지원하는 것이 저의 역할입
니다.

Q2. 멘토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에게는 사회성을 키우고 또래 관계를 넓히는 기회가
되며, 대학생이나 일반인 멘토에게도 타인과 깊게 교감
하는 뜻깊은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갈
청년들에게 매우 특별하고 가치 있는 경험이 되는 만큼,
이 활동이 더 널리 알려지고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우체국 금융의 내일을 여는 핵심 SP

김태희 서울중앙우체국 금융영업실장·김광재 포항우체국 금융영업실장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체국 금융의 미래를 개척하는 이들이 있다. 시소처럼 변화무쌍한 금융시장의 한가운데서 우정금융의 남다른 저력을 입증해 가는 핵심 SP, 김태희 서울중앙우체국 금융영업실장과 김광재 포항우체국 금융영업실장을 만났다.

글·편집실 사진·김경수

서로 다른 무대에서 찾은 각자의 답

우체국예금 마케팅 전담 인력인 SP(Savings Planner)는 2024년 시범 도입된 이래 지난해 전국 218명 규모로 확대됐고, 올해는 그중에서도 36명만이 선발되는 핵심 SP가 새롭게 출범했다. 핵심 SP는 고액 자산가와 기업 고객을 발굴하는 동시에 신규 SP를 코칭하며 영업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중앙우체국 김태희 금융영업실장과 포항우체국 김광재 금융영업실장은 핵심 SP로 선발되어 각자 자리에서 우체국예금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태희 실장은 시중은행 본사가 밀집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법인 영업에 집중했다.

“수신고를 늘리려면 법인 마케팅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우체국에서도 법인 영업을 나오냐’며 생소해하셨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뢰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명함을 돌리고 문을 두드렸죠.”

이처럼 발로 뚫은 노력 끝에 지난해 8,000억 원이던 서울중앙우체국 예금 수신고는 올 상반기 1조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경이로운 성과로 이어졌다.



포항우체국 김광재 실장은 지역 특성에 맞춰 문중 자금처럼 지역 내 대형 자금을 공략하는 한편, 관내 한 연구소에 청주 오창에 연구소를 신축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금 유치에 공을 들였다. “연구소 신축에 약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곳에 집중했어요. 담당자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신뢰를 쌓았고, 결국 1,5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김광재 실장의 치밀한 현장 영업 덕분에 포항우체국은 지난 6월, 경북청 최초로 수신고 1조 원을 달성하는 결실을 맺었다.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미래

SP로서 깜짝 놀랄 만한 성과를 낸 두 사람은 사실 ‘늦깎이 금융인’이다. 15년 넘게 물류 분야에 몸담았던 김태희 실장은 2024년 7월 서울중앙우체국 금융영업실장으로 부임했고, 지원 업무를 오래 맡아온 김광재 실장 역시 같은 시기 고객지원실장으로 금융 업무를 처음 접했다. 마침 본부가 SP 제도를 막 시작한 시점이었다. 두 사람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SP 제도를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노력도 남달랐다. 김태희 실장은 고객과 채권 시장이나 금리 흐름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겨 신문과 금융 동향 자료를 꾸준히 챙겨 읽고 있다. 김광재 실장 역시 연고 없는 포항에서 기존 거래처 담당자들과의 관계부터 다시 차근차근 쌓아나갔다.

이제 두 사람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에도 마음을 쏟고 있다. 김태희 실장은 신규 직원들이 금융 업무를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정리하며 신규자 교육과 강의에 꾸준히 나서고 있고, 김광재 실장은 지난해 ‘라오스 계절근로자 대상 해외송금 마케팅’ 우수사례를 경북지방우정청과 본부에 발표하며 노하우를 나눴다.

김태희 실장은 “올해는 우리 법인들을 2,000억 원대로 키우고, 신규 직원들이 쉽게 익힐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광재 실장은 “수신고 1조 원을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장병 적금 마케팅도 체계를 잡아 우리만의 틈새를 넓혀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신뢰를 쌓아가는 두 핵심 SP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김광재 포항우체국 금융영업실장



김태희 서울중앙우체국 금융영업실장



우체국이 핫플레이스로! 국유재산의 재발견

우편·금융 업무 공간으로만 생각했던 우체국 건물이

요즘은 빵 냄새 솔솔 나는 카페부터 전시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 자동차용품점까지
새롭고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서울지방우정청 국유재산 활용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서울 시내 우체국들의 이색 변신을 모아봤다. 정리. 편집실 사진 제공.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 2호점까지 낸 베이커리 카페



셰프의 아이들 | 서울당산동우체국 구청사

2022년 옛 당산동우체국을 리모델링해 1호점을 연 베이커리카페가 반응이 좋아 올해 1월 시흥동우체국에 2호점까지 선보였다.

우체국, 문화예술 실험실이 되다



탈영역우정국 | 서울창전동우체국 구청사

미술, 디자인, 실험예술, 미디어아트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전시·공연·워크숍이 열리는 공유 공간. 옛 우체국 건물이 마포의 문화예술 실험실로 탈바꿈했다.

감각적인 카페 공간으로 대변신!



카페 어니언 | 현 서울강북우체국

성수동에서 시작해 인기를 끈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가 강북우체국 1층에 자리를 잡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우체국에서 만나는 자동차 라이프스타일



틀레 송파점 | 서울오금동우체국 구청사

옛 오금동우체국 1층이 자전거 캐리어, 루프박스, 루프탑 텐트 등 자동차용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매장으로 변신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우표, 시대에 풍당 빠지다 '202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이간수문전시장에서는 우표를 매개로 전 세대가 하나 되는 '202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가 열렸다. '우표, 시대에 풍당 빠지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과거의 아날로그 감성과 미래의 첨단 기술이 어우러져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정리, 편집실 사진, 한국우편사업진흥원

그때 그 시절 태권브이부터 MZ 트렌드까지

전시장 한쪽에 들어서자 3m 높이의 대형 '로봇 태권브이' 피규어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낡은 만화책과 옛 전화 번호부가 나란히 놓인 공간은 태권브이 세대에게는 아련한 추억을, 처음 접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호기심을 안겼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태권브이를 기념해 기념우표 70만 장을 발행했으며, 개막식에서는 태권브이의 아버지 김청기 감독에게 전달식을 가지며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또한, 현재의 감성을 담은 '2026년 트렌드 키워드 우표' 테마관에서는 '덕질', '역사덕후' 등 트렌디한 키워드를 활용해 우표를 힙한 레트로 아이템으로 다채롭게 풀어냈다. 관람객들은 우표 성향 테스트와 유머러스한 밈(meme) 메시지를 즐기며 우표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

우정 문화와 신기술의 만남, 디지털 우표 콘텐츠

미래를 연결하는 'AI 융합 콘텐츠' 테마관에서는 집배원 복장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태권브이의 필살기 동작을 재현하고 K-POP 댄스를 선보여 우정 문화와 신기술의 특별한 만남을 연출했다. 이와 함께 10월 발행 예정인 '페이커' 기념우표의 사전 홍보관에는 체험형 게임존과 유니폼·마우스 등 관련 소품을 마련해서 관람객의 발걸음을 잡았다. 전시장을 직접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한 온라인 공간도 준비됐다. 대한민국 우표전시회 누리집(www.stamp2026.kr) 온라인 전시관에서는 우표 수상작을 관람할 수 있었으며, 온·오프라인 참여형 이벤트가 풍성하게 펼쳐졌다. 과거와 미래를 잇고 전 세대가 하나 된 이번 전시회는 우표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뜻깊은 시간이었다. ✉

우체국 핫클립

우체국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더 많은 영상이 보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우체국'을 검색하세요!

출퇴근길처럼 무료한 잠깐의 시간 속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줄 테니까요.

정리. 편집실



우정으로 세상을 잇다(with. 윤택)

윤택, 김포우체국 집배원 되다?! 우편물 배송부터 소포 배달,

그리고 빈집 확인 등기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까지!

편지와 소포를 넘어 지역의 안부까지 전하는 우체국 집배원의 하루.

윤택의 좌충우돌 집배원 체험기,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영상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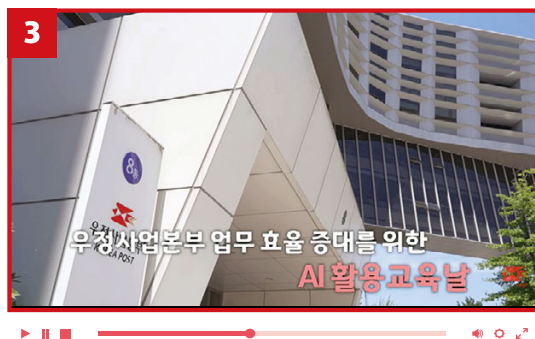


2026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수상작을 소개합니다

‘당신의 시작을 응원하는 편지’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1만 1,600여 건의 진심이 담긴 손편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가족을 향한 사랑,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 희망의 메시지까지... 영상으로 만나는 감동의 수상작,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영상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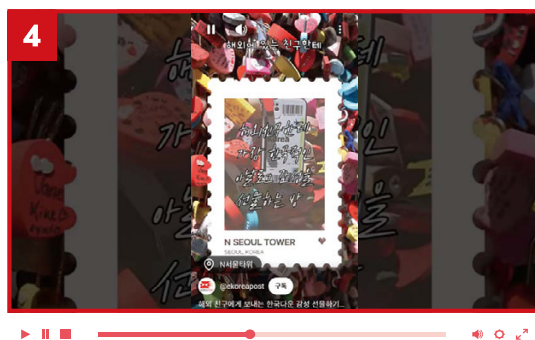


AI로 일잘리 되기, 우정사업 AI 활용 실전교육

AI로 더 스마트하게 일하는 우정 업무의 시작. 우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 현장에서 AI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AI활용 업무 효율 증대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영상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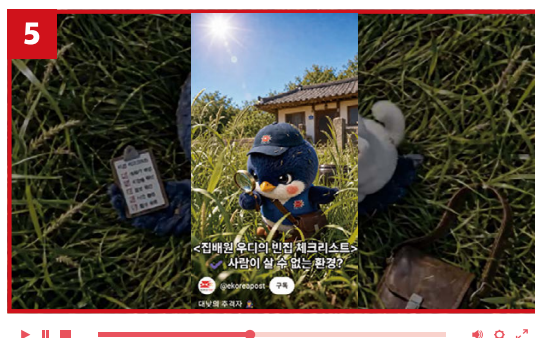


해외 친구에게 보내는 한국다운 감성 선물하기

DM 대신 손편지 어때요? 남산의 풍경이 담긴 엽서부터 N서울타워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우표까지. 작은 한 장에 담긴 서울의 기억과 따뜻한 마음. 오늘, N서울타워에서 아날로그 감성을 선물해보세요.



영상 바로가기



대낮의 추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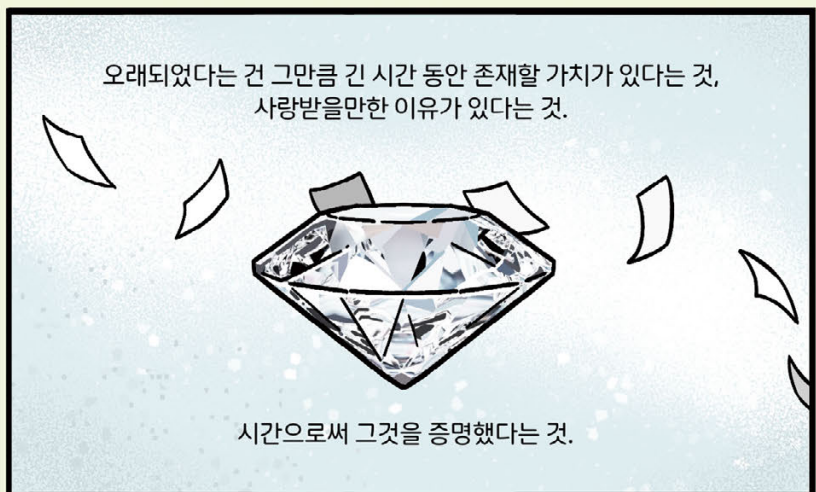
대낮의 시골길, 집배 가방을 멘 제비가 비장하게 향한 곳은...? 오늘의 미션은 바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확인!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가 함께하는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우디스토리에서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영상 바로가기

오래돼서 더 좋은 것들

그림. 몽냥





독자 여러분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글을 선정해 '우체통 앞에서'에 소개합니다.

✉ 《우체국과 사람들》담당자 E-MAIL : hj1911@posa.or.kr

First Story

편지의 힘



from. 주영미(전북 익산시)

힘든 이사를 1년에 두 번이나 치르고, 젖은 수건처럼 무겁게 한참을 누워 있던 날이었다.

다음 날 출근으로 다시 몸을 일으켜 새벽까지 쉴 새 없이 집 정리를 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별빛이 거실 창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래!! 이곳에서 좋은 일이 별처럼 쏟아지리라~~’

궁지에 몰리면 최대치까지 긍정 회로를 돌려야 버텨진다.

습관처럼 되뇌었지만 그래도 점점 지쳐갈 무렵 낮익은 꽃무늬 상자가 보였다.

“우와~” 외마디 탄성이 저절로 났다. 상자 뚜껑을 열자 나는 이내 시간 여행자가 되었다.

두 딸이 어릴 적부터 써 주었던 쪽지와 편지가 그득 담겨 있었다.

맞춤법이 틀려 소리 나는 대로 써 준 어린이집 때 편지부터 작년 시집가기 전 써 준 큰딸 편지며

대학생이 되어 멀리 혼자 원룸 생활을 하고 대학연수로 다른 나라에 공부하러 간 작은딸의 편지,

생일 축하와 고마움이 가득 담긴 남편의 응원 글까지. 그 속에서 나는 울고 웃으며 다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여기까지 묵묵히 걸어온 것이다. 바로 우리 모두의 역사였다. 그것들은 그냥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인생의 굽이굽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게 동아줄이 되어 주었고,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순간순간을 사진보다 더 자세히 기록해 주었으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를 연결해 주는 오작교가 되었다.

쉬운 방법은 많다. 전화나 영상통화도 있지만, 우리 가족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웠고

편지의 힘을 믿고 있다. 아들이 없는 내게 우리의 아들로 와 준 사위도 생일에 편지를 써 주어

내 보석 상자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 보석 상자에 많은 보석은 없지만

더 값진 편지가 가득 찬 나는 진정한 부자이다. 30년째 직장을 다니는 내게

가장 커다란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인연들의 편지를 잘 보관하고 힘들 때 다시 꺼내 보며

웃을 수 있으니 내일 또 힘을 내서 출근하리라. 편지의 강력한 힘을 믿으며.

Second Story

딸과의 소소했던 여행

from. 박영희(서울시 노원구)



오랜만에 주말에 딸과 강원도 양양 여행을 다녀왔다. 딸이 직장 생활로 바쁘지라 자주 만날 기회가 적기에 홀로 지내는 엄마를 배려한 여행이었다. 복잡다단하고 숨 막히는 서울을 뒤로하고 3시간 만에 도착한 양양은 마치 나를 기다린 듯 반겨주었다. 짙은 초록이 눈앞을 채우고 유난히 부드러운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이름 모를 산새들의 울음소리조차 자연스럽게 내 귀에 스며들었다. 대도시의 생활이 얼마나 각박하고 삭막한지 여실히 느껴졌다. 시골 출신인 나로서는 이런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 늘 동경의 대상이었다. 숙소에 도착해 창문을 여니 서울과는 전혀 다른 포근한 공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맑고 시원스러웠다. 저녁은 메밀막국수와 육전으로 소박하게 해결했다. 동치미를 부어 비빔 막국수는 시원하고 감칠맛이 뛰어났고, 딸과 마주 앉아 나누는 한 끼는 무엇보다 값졌다. 숙소에서는 집안 이야기와 일상을 나누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찾은 낙산사는 세상사가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사찰 너머로 펼쳐진 바다는 한없이 넓고 깊었다. 스쳐 가는 바람은 아무런 말이 없어도 큰 위로가 되었다. 대웅전에 가 부처님 앞에 우리 가족의 건강과 안녕, 행복을 빌었다. 이어 낙산해수욕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모래 위에 남겨지는 발자국은 금세 바람과 파도에 흐려졌다. 그 모습을 보노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니 이 순간마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도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밀려와 부서지기를 반복했다. 그 단순한 움직임에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힘이 있었다. 모처럼 불안과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여행은 무언가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털어내고 비우는 시간임을 깨달았다. 낙산의 맑은 공기와 바람, 파도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고, 언젠가 다시 그곳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Post News

1

**돌봄 어르신 밀반찬,
우체국 집배원이
배달한다**

서울지방우정청이 광진구청, 우체국공익재단과 협약을 맺고 8월 4일부터 서울 최초로 '돌봄 어르신 밀반찬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우체국 집배원들은 기후변화 속 자치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선한 밀반찬을 신속히 전달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구청과 공유하는 등 '생활 밀착형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했다. 서울지방우정청은 해당 복지 서비스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

**국내 유니콘 기업 육성,
한국벤처투자
손잡는다**

유니콘 기업 육성을 지원할 벤처펀드의 조기 결성을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한국벤처투자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벤처투자가 선정한 펀드 운용사에 출자 심사 우대 조건을 제공하고, 민간 출자자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성장이 유망한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두 기관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카할라 우정그룹 CEO
“국제우편 품질향상에
협력하자”**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지난 7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카할라 우정 연합(Kahala Posts Group) CEO 회의에 참석해 국제우편(EMS)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선진 우정사업 최고책임자들은 EMS 발송 물량 감소에 대응해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뜻을 모았으며, 배달 표준 단축 등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뉴질랜드 우정이 신규 준회원으로 공식 가입하며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4

**우체국,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개시**

7월 20일부터 고령층 및 농어촌 등 금융 취약지역 20개 우체국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이날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청양우체국을 방문해 대출업무 절차 등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시중은행 점포 감소에 따른 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고, 우체국이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 없는 포용금융 공간으로 역할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했다.



5

우편집중국 활용,
민간 물류기술
현장실증 기회 연다

물류 산업의 AI 전환(AX)을 촉진하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편집중국 기반의 '현장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실제 우편물류 현장과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AI,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의 성능과 안정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7월 14일부터 모집을 시작해 8월 중 제안서 제출 및 평가를 진행했으며, 9월 최종 선정된 기업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증에 돌입한다.

6

우체국보험 앱에서
'실손24' 청구
원스톱 처리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인 '실손24'와 우체국보험 모바일 앱을 연계해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실손24'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연계를 통해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 고객은 추가 앱 설치 없이도 참여 병·의원 및 약국의 진료 내역을 조회하고, 서류 발급이나 첨부 없이 보험금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고객 중심의 편리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환경을 완성했다.

7

국내 우편요금,
5년 만에 조정...
편지 한 통 500원

7월 1일부터 규격 25g 기준 국내 통상 우편요금이 43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우편물량 감소와 적자 폭 확대를 극복하고,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이후 5년 만에 시행됐다. 가계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으며, 조정 후에도 주요 OECD 국가 대비 절반 이하 수준의 저렴한 요금을 유지한다. 경영 혁신과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8

KBO부터 태권V까지,
다채로운 기념우표
3종 발행 소식

지난 7월, 국민적인 사랑과 문화적 가치를 담은 기념우표 3종이 연이어 선보였다. 7월 10일 KBO 리그 10개 구단 마스코트 우표(70만 장)를 시작으로, 16일에는 석굴암·불국사 등 우리 유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우표(45만 장)가 발행됐다. 이어 29일에는 개봉 50주년을 맞은 '로보트태권V' 우표(70만 장)를 추억의 원형 딱지 형태로 출시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해당 우표들은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



소속·산하기관 소식

①

서울지방우정청 다 쓴 토너, 서울 지역 우체국이 회수해 재자원화



서울지방우정청이 친환경 재제조 전문기업 (주)서광양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월 20일부터 전국 최초로 '폐토너 그린회수 서비스'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 지역 198개 우체국을 통해 다 쓴 토너를 회수해 재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처리 및 배출에 어려움을 겪던 폐토너를 무료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②

부산지방우정청 지역 지키는 '생활안전 파수꾼' 집배원 감사장 수상



부산사하우체국 김동울·김현수·박제영 집배원이 위급 상황 주민 구호와 화재 초기 진화, 분실 현금 습득 신고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7월 30일 부산사하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부산지방우정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로서 '생활 밀착형 안전망' 역할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③

경북지방우정청 전국 최초 '느린우체통' 공식 인증제 시행



경북지방우정청이 느린우체통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느린우체통 공식 인증제'를 도입했다. 인증마크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후에도 정기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경북우정청은 이번 인증제 시행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변함없는 감성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④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 소포 고객만족도 향상 MOU 체결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7월 21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본원에서 '우체국 소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업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우체국 소포 관련 민원의 처리 품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우편 서비스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더욱 신뢰받는 소포 서비스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 대한민국 AI 혁신인재 커넥트 개최

인공지능 인재 양성 위해 대학·기업 1천여 명 한자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2026 대한민국 AI 혁신 인재 커넥트'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분야 혁신 인재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AI 대학원, AI 융합혁신대학원, 생성형 AI 선도 인재 양성 등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주요 인재 양성 사업에 참여 중인 대학(원)과 기업, 연구자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회식에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AI 기업, 연구기관, 대학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I 인재 양성 산학협력 미래상(비전) 선포' 서명식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AI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적극 연결하고 상호 협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모았다.

배경훈 부총리는 주요 대학과 기업의 전시 부스를 방문해 우수 연구 성과를 둘러보고,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원생들의 연구 발표를 들으며 인재들의 도전과 성장을 격려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데이터센터, 퍼지컬 AI 등 세계 시장 주도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 필요한 인재 역량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상, 대학·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최재천 교수의 기조강연, AI 빅테크 선배와의 대화, 북콘서트, 토크쇼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이 진행돼 학생들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22개 대학(원)과 9개 기업이 참여한 전시관에서는 연구 성과 전시와 함께 1:1 자문, 모의 면접, 기업 채용설명회, 입시상담이 함께 열려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독자 참여

2026 9+10 vol.772



2026년 7+8월호
정답

- ① 새로 봄 우체국 공익적금
- ② 컬링
- ③ 힐링

EVENT. 1

알쏭달쏭 퀴즈

이번 호를 읽고 세 가지 문제의 정답을 보내주시면 총 15명을 추첨하여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① 전국의 우편·금융 서비스가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체국의 IT와 데이터를 책임지는 곳은 어디일까요?
1. 우정정보관리원 2. 우정인재개발원 3.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② 전국의 우체국예금 마케팅 전담 인력 중, 고가치 고객 유치와 후배 코칭을 담당하는 금융 마케팅 리더를 부르는 명칭은 무엇일까요?
1. 핵심 PM 2. 핵심 FC 3. 핵심 SP
- ③ 2026 대한민국 우표전시회의 주요 테마이기도 하고,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한 0000를 기념해 기념우표를 70만 장 발행했습니다. 0000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 드래곤볼 2. 태권비이 3. 원더걸스

이벤트 모바일 참여 방법



QR 코드를 스캔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VENT. 2

체국이를 찾아라!



책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곳에 숨겨진 2명의 체국이를 찾아보세요. 체국이를 발견한 페이지 번호를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EVENT. 3

할 말 있어요

《우체국과 사람들》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혹은 취재 요청이 있다면 《우체국과 사람들》웹진(postnews.kr) 이벤트 참여하기 배너를 통해 의견을 보내주세요. 의견 채택 시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PC 참여 방법

《우체국과 사람들》
(www.postnews.kr) 사이트에
접속해 오른쪽 《우체국과 사람들》
이벤트 참여하기 배너를 클릭해
참여해주세요. 세 가지 이벤트에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참여 기한 2026년 10월 30일(금)

* 이벤트는 웹진에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체국과 사람들》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체통 앞에서'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글을 선정하여 《우체국과 사람들》에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원고 보낼 곳 《우체국과 사람들》담당자

✉ 메일 hj1911@posa.or.kr 📍 주소 (07245)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83, 5층

※ 원고는 가급적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MY ALL DAY 체크카드 출시기념

혜택이 ALL DAY 이벤트

이벤트 기간 2026.8.18.(화) ~ 2026.10.31.(토)

당첨자 발표 2026.11.27.(금)

경품 지급 2026.11.30.(월)



EVENT 1 스텝업 리워드 이벤트

MY ALL DAY 체크카드로 누적
10/30/100/500만원 이상 결제 고객 1천명 추첨



500만원 이상 결제 고객
24K 순금 골드바 3.75g(1돈)



100만원 이상 결제고객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 10만원



30만원 이상 결제고객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 3만원



10만원 이상 결제고객
CU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1만원

EVENT 2 첫결제 웰컴 이벤트

MY ALL DAY 체크카드
신규발급 후
1회 이상 결제 고객
(건당 5천원 이상)



메가커피 아이스아메리카노 1매
(2천원 상당)

EVENT 3 하루 3번 결제 이벤트

MY ALL DAY 체크카드로
하루 3회(건당 1만원 이상)
이상 결제한 고객



다이소 1만원 모바일 상품권

EVENT 4 해외결제 챌린지 이벤트

우체국 Master 체크카드로 카드당
해외(직구포함) 누적금액 10만원 이상(원화 출금금액 기준) 결제 고객



'26년 하반기 발행 기념우표집 1부
(25,000원 상당)

- * 본 이벤트는 개인고객 대상이며, 카드 이용 후 이벤트 조건 충족 시 자동응답됩니다.
- * 마케팅 정보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당첨자 선정 및 경품지급이 가능합니다.
- * 당첨자 발표일 기준, 취소실적 및 해지카드 등은 제외됩니다.
- * 이벤트 1,2,3,4 중복당첨이 가능합니다.
- * 이벤트 1에서 중복당첨은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가장 높은 금액의 경품을 제공합니다.
- * 이벤트 1에서 상위 이용금액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추첨하며, 미당첨자는 하위 구간 추첨에 다시 포함됩니다.
- * 이벤트 4는 해외 T&E 인증(항공, 호텔, 주유소, 렌터카 등)에서 결제가 제한되며, 해외 결제금액은 원화 출금금액 기준입니다.
- * 당첨자 발표는 우체국 인터넷뱅킹(www.epostbank.go.kr), 스마트폰 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경품은 2026.11.30.(월)에 지급하며, 경품 제공을 위한 수탁 업체에 고객님의 정보(성명, 휴대전화 번호, 주소)를 제공하고 경품 발송(모바일 쿠폰, 실물 경품 배송) 업무를 위탁합니다.
- * 경품은 우체국에 등록된 고객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로 지급 예정이며, 등록된 정보가 다른 경우 발송 등 정상적인 지급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객정보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 경품 이용 시 유의사항(유효기간 등)은 발송된 메시지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용 제공금액이 5만원 초과 시 제세금과금은 우체국 부담이며, 제세금과금 납부와 관련하여 경품 제공 수탁업체에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 * 제세금과금은 기타소득세와 합산되어 본건을 포함하여 연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품 제세금과금으로 인한 추가발생금은 우체국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 * 경품수령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개별 안내 시 수령거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이벤트는 우체국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이벤트 경품은 사정상 동일 금액대의 다른 상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세혜택 및 이용조건은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글을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 인터넷뱅킹(www.epostbank.go.kr), 스마트폰 앱, 우체국고객센터(☎1588-1900, 1599-19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인 심사일 제04-260805-00-0963(26.8.5.~26.10.31.)



우체국과 사람들

KOREA POST MAGAZINE SINCE 1946



COVER STORY

1946년 10월 창간, 올해 80주년을 맞은
《우체국과 사람들》의 표지는
그동안 이어져 온 사보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려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1946년부터 1970년까지 사용했던
첫 제호 《체신문화》 중에서도 1946년 10월
창간호 표지를 재해석했습니다.